



가계동향조사의 재산소득은 비중이 낮고 상대표준오차가 높아 이용시 유의가 필요합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8.27. 2026년 2/4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도와 관련하여 조선비즈는 「2분기 부동산·주식에서 나오는 소득 21% 늘 때 근로소득은 제자리 걸음」을 기사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기사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과 주식매매 차익 등이 재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.
- 가계동향조사의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개인·퇴직연금소득, 토지 임대소득 등 기타재산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다만,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고, 주식매매 차익은 조사하지 않습니다.
- 2026년 2/4분기 재산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21.3% 증가하였으나,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.3%로 상대표준오차(RSE)가 높아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.

담당 부서	국가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	책임자	과 장	박순옥 (042-481-2359)
		담당자	사무관	김명현 (042-481-6952)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	정미현 (044-215-2850)
		담당자	사무관	김나운 (kny218@korea.kr)